

## 제32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

- 지난 6월 27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이정희 교수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충남도 정명복 안보정책자문관, 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 담당 공무원, 기타 중국의 일대일로와 화교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각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그림1> 이정희 교수 발표사진 및 단체사진

- 이번 포럼에서는 화교네트워크를 알아보고,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화교네트워크를 활용한 충남의 대중국 교류방안을 논의 하였다.
-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이념은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확대, 자금 조달, 민심 상통이며 화교네트워크는 주로 화교공동체간의 경제적 통합, 문화적 교류, 정치적 결합 등에 걸쳐 형성된다고 하였다.
- 중국 개혁개방이후 화교화인 인구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며 주로 동남아 지역에 많이 분포됐는데 이는 광둥성(广东省)과 푸젠성(福建省) 농민들이 이주했기 때문이고, 한국의 화교들은 주로 산둥성에서 건너왔다고 하였다.
- 국내화교는 주로 인천지역 화교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인천지역에서는 주로 화교동향회, 중화회관(중화상회), 화교학교를 통해 화교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이 외에도 종교네트워크나 비밀결사 네트워크를 통해 화교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 화교화인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세계화상대회가 아주 유명한데 1991년 싱가포르에서 첫 개최 후 2년마다 개최되는 경제올림픽이라고 하였다. 2005년 서울에서 제8차 세계화상대회가 개최된바 있으며 28개 국가에서 총상회단위로 참가하며 한국의 중화총상회도 참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 구 화교네트워크는 상당한 결집력이 있지만 폐쇄적이고, 신 화교네트워크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구 화교들보다는 결집력이 약한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화교네트워크 활용방안으로 중화총상회, 화교협회, 다문화

가정, 화교연구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도 및 시군 중국교류 담당자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 우선,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대만국적 화교(구 화교)가 중국대사관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정희 교수는 “구 화교단체는 세계무대에서 날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 입국 시에도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재는 중국대사관에 단체로 등록해 대만과 중국 양쪽을 모두 활용하는 양다리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다.
- 충남연구원 송영현 박사는 화교네트워크가 일대일로 정책을 활용하여 성공을 이뤄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정희 교수는 “아직은 물위로 올라온 사례나 연구가 없는데 대사관에서 화교를 초청하여 일대일로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화교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 충남도의 정명복 안보정책자문관은 한국전쟁이후 포로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질문했고, “한국전쟁 당시 화교가 우리군의 비밀정보 첩보부대에서 활동했고, 전쟁이후에는 포로를 설득하여 한국에 남든지 대만으로 가라고 설득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충남이 화교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정희 교수는 “강경소학교를 거듭 강조하면서 실제로 방문해보니 외관, 내부 모두 잘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이를 활용하여 대전, 충남권 화교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당진시 주무관은 화교가 향후 세계 정치·경제 등 영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는 향후 중국 전통문화, 민족문명意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화교네트워크는 문화와 민족정신으로 집결하게 되고 그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지명은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mailto:quanchfu@cni.re.kr))